

研究發表會

朱子와 退溪의 實踐涵養에 대한 努力

台灣師範大教授 黃 錦 鉉

I. 朱子學은 博大하고 精深하다. 卽 理氣學說의 宇宙觀으로부터 心性學說의 人生觀으로 發展하였는데 兩者의 過程의 解釋이 各各 다르나 그 道理는 오히려 一貫되어 있다. 朱子는 비록 理와 氣는 서로 相異한 「二物」이라고 단언코 是認하고 있으나 그러나 理와 氣는 오히려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을 認定하고 있다. 氣가 없다면 「成物」이 不可하고 그렇게 되면 理 亦是 附着할 곳이 없게 되니 氣가 集聚하여 곧 「成物」이 되면 理 亦是 그 氣가운데에 寄寓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理의 氣는 本來 相互先後의 分別이 없으며, 氣가 있다면 必히 理도 共在하기 마련이다. 反對로 理가 있으면 곧 氣가 共在하기 마련이니 朱子는 다만 方便上 便利하게 言及하기 위해서 理와 氣, 兩者로 나누어 說明하고자 했을 뿐이다.

理를 「形而上」者라고 부르고 氣를 「形而下」者라고 부르나 理와 氣는 本來 先後關係가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어 理와 氣의 所從來를 따지어 캐묻는다면 理가 先有한다고 하는 것이 朱子의 見解이다.

이것을 太極과 陰陽의 關係로서 說明한다면 理는 太極이요 氣는 陰陽이니 陰陽은 비록 두 글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一氣의 流行일 따름이다. 그래서 朱子에 의하면 『太極 卽 理는 스스로가 陰陽 卽 氣가운데에 共在하며 陰陽을 떠날수 없다』고 하고 있다. 特히 可見할 수 있는 것은 理와 氣의 關係는 不可分한 것으로 一體이면서 兩面이요 그 關係가 本體와 現象임을 알수있다. 氣가 理로 부터 나왔으나, 그러나 理는 곧 氣가운데에 共在하고 있다. 本來부터 本體가 없

다면 곧 現象이 있을수 없으나, 그러나 亦是 現象이 없다면 本體도 何在에 附着할 곳이 없게된다. 故로 天下에는 氣없는 理가 存在하지 않는가 하면 理없는 氣도 또한 存有하지 않는다. 이러한 宇宙觀으로 부터 出發하여 人生論 方面에 轉到되면 人性은 곧 天地의 性과 氣質의 性으로 分有된다. 「天地之性」을 全的으로 理를 가리켜 말한다면 이는 바로 天理 即 「渾然至善」이 되고 「氣質之性」은 理와 氣 兩者의 相互 複雜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人稟의 氣는 厚薄하고 清濁하여 그래서 善과 惡의 分別이 있게되니 여기에 涵養에 依賴해야 할 努力이 必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理와 一脈 相通하게 되어 우리의 마음은 萬가지의 理를 가지고 있고, 萬가지의 理는 모두 우리의 마음에 共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存心」이 그속에 있으며, 또 道理가 곧 그 속에 있어서 이것이 涵養의 最高境界가 된다. 처음 着手한 努力에 對하여 朱子는 伊川이 말한 二句節 即 『敬으로써 內的인 涵養에 忠實해야하며, 致知로서 外的인 格物窮理 即 進學에 忠實해야 한다』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朱子에 의하면 「敬」은 爲學의 步驟일 뿐아니라 또한 聖人の 境地에 들어가는 階梯가 됨을 是認하고 있다.

Ⅱ. 退溪는 朱子의 學을 心記하여 特히 「敬」一字의 修學과 努力을 重視하고 있다. 그는 일찌기 李德弘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爲學은 그 自體의 主宰를 先立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였고, 『如何히 하면 爲學의 主宰를 先立할 수 있느냐』하는 물음에 退溪는 곧 『敬이야말로 爲學의 主宰를 先立한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退溪는 一生동안의 致力을 바로 이 「敬」의 修學과 努力에 두고 있었다. 金誠一은 이에 對하여 이르기를 『先生의 年壽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貴體도 날이 갈수록 深弱하나 進學의 힘은 날로날로 높아지며, 道에 任하는 態度 亦是 세월이 흐를수록 篤厚하였으니 그 莊嚴 持養의 努力은 그 극한 곳에서 혼자 있을 때일수록 尤嚴하였으며 平素에는 날이 밝기전에 일어나서 항상 依冠을 바로하고 손과 머리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원종일 책을 읽고 靜坐로써 焚香을 하며 항상 如斯한 마음이 해가 아침에 처음 솟아 오르는 것과 같이 실패었다』고 하고, 退溪는 스스로

朱子の 말을 인용하여 『나는 「敬」一字를 들어서 알기를 「聖學成始」者의 方法이요 「聖學成終」者의 方法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敬」의 基礎가 또한 致知에 있다하니 致知가 어디에 가서 先立하지 않고 서는 이른바 「敬」一字 亦是 頓放할 곳이 없게 된다. 故로 「居敬」과 「致知」는 相互 發明의 이어서 能히 窮理할수 있다면 居敬의 修學과 努力이 날로 益進할 것이며, 또한 能히 居敬할 수 있다면 窮理의 修學과 努力이 날로 益密하기 마련이다. 居敬과 窮理를 體驗할수 있는 努力은 全的으로 實踐에 根據하고 있다. 退溪도 自言해서 이르기를 『朱子の 글을 읽고 爲學의 方法을 體得하고 爲學의 興趣를 引發하여 居敬과 窮理를 實踐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義理를 親히 體驗한다』고 말 하였으며, 또 『知識을 土臺로 더욱 益窮하는 것은 平生을 爲해서 그 門路가 甚善한 일이다. 그러나 다만 「知爲然」하기에 獨하지 아니하고 그 行爲에 對해서도 이미 行한 것을 土臺로 亦是 益勉하면, 知識과 그 行爲가 同時에 並進하게 되니 그 門路가 可以 達通하여 漸漸 無疑의 境地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言行錄卷一 論格致)

朱子와 退溪는 다같이 涵養과 實踐의 그 修學과 努力이 하나로 結合되어 있어서, 涵養이 없으면 格物窮理를 致力할 만한 功績도 없고 實踐이 없으면 亦是 涵養을 明白히 할만한 効力도 없게 되어있다. 생각컨대 涵養과 實踐이 서로 結合해야만 비로소 可以 「爲有源頭活水來」의 境界에 到達할 수 있게 된다. 退溪 亦是 涵養과 實踐의 趣旨를 深得하여 일찍이 詩에 이르러 말하기를 『홀로 산림 속 草堂에서 萬卷의 책을 즐겨하고, 변함없는 한 마음에 十年이 넘었도다. 近間에는 根源과 단란듯, 내 마음 다 잡아 太虛를 보게 하네.』하였다.

Ⅲ. 近世西洋文明이 「致知窮理」方面에 있어서는 長足한 進歩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實踐을 涵養하는데 있어서는 흡사 兩者(窮理와 致知)가 相互配合될 수 없는듯 하여 이른바 内外相습이 不能한 狀態에서 理가 窮究하던 窮究할 수록 知는 더욱 더 極致해야 되니 人類의 生活은 結局 平衡의 發展을 獲得할 수 없게 된다.

우리 東洋文化는 孔門爲學으로부터 實踐을 重視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博學함으로부터 始作해서, 나중에는 篤行에 이르게 된다. 朱子

는 孝經을 어려서 읽고 이르기를 『不若是하면 非人이요』라 하였으니 이는 實踐을 堅決히 하는 그 意志가 言辭에 나타나는 것이다.

日本에서 제일먼저 朱子學을 提倡한 사람은 藤厚惺窩이다. 退溪의 學은 또한 敬義學派인 山崎闇齋가 日本에 傳受하였고, 闇齋는 朱子の 四書文集, 語類等書를 全的으로 研究하여 晩年에는 朱子學과 神道を 統一 함으로써 内外相合에 致力하였으니 이것은 日本文化에 至大한 影響을 끼칠 수 있었다.

오늘날 朱子學과 退溪의 學을 研究함에 있어서도 實際로 内外相合의 觀點에 順應하고 特히 内外의 發揚을 加함으로 해서 現時代의 社會에 어떤 眞實한 貢獻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原文中國語〉